제 19 장

콩 수급 동향과 전망

승준호* · 허 덕**

목 차

1. **국제 콩 수급 및 가격 동향**
   1.1. 국제 콩 수급 동향
   1.2. 국제 콩 가격 동향
   1.3. 국제 교역 여건
2. **국내 콩 수급 및 가격 동향**
   2.1. 콩 생산동향
   2.2. 콩 수입 동향
   2.3. 콩 소비 동향 및 소비자 구매행태
   2.4. 콩 가격 동향
3. **콩 수급 및 가격 전망**
   3.1. 단기 전망
   3.2. 중장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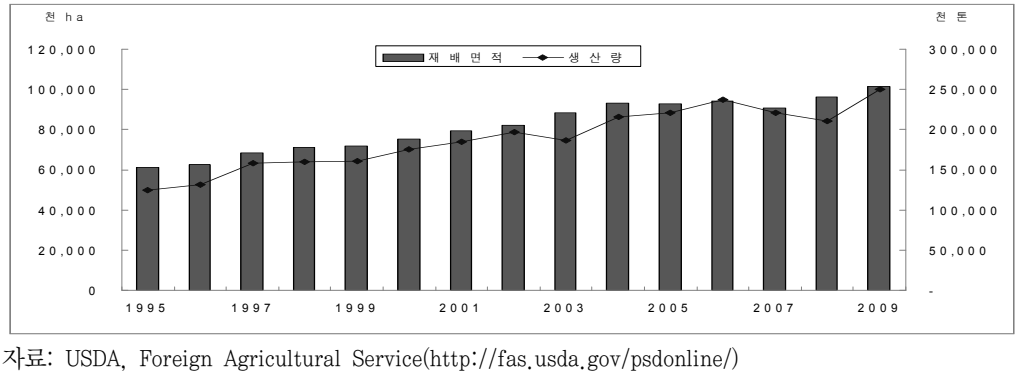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jhseung@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huhduk@krei.re.kr

1 국제 콩 수급 및 가격 동향

1.1. 국제 콩 수급 동향

○ 세계 콩[1] 재배면적은 지속적인 소비 증가에 따라 1999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7년 들어 감소하였다. 2007년 세계 콩 재배면적이 감소한 이유는 미국의 콩 재배농가들이 콩 대신 옥수수 재배면적을 늘려 미국 콩 재배면적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2008년부터 세계 콩 재배면적은 다시 증가하여 2009년 1억 149만 ha로 전년대비 5.4% 증가하였다. 2009년 기준 국가별 콩 재배면적 비중은 미국 30.6%, 브라질 22.4%, 아르헨티나 18.5%, 인도 9.5%, 중국 8.7% 등이다. 이들 5개국의 콩 재배면적은 세계 전체의 89.7%를 차지하여 콩의 주요 생산국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림 19-1. 세계 콩 재배면적 및 생산량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http://fas.usda.gov/psdonline/)

○ 2009년에는 세계적으로 단수와 재배면적이 늘어남에 따라 세계 콩 생산량이 증가세를 보였다. 2009년 세계 콩 생산량은 전년대비 18.7% 증가한 2억 5,025만 톤으로 나타났다. 이 중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중국의 생산량은 세계 전체 생산량의 88.2%를 차지하고 있다. 브라질과 아르헨

1) 여기서 콩은 대두(soybean)를 의미하며, 팥, 완두 등은 제외하였음.

티나는 2009년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2008년 심각한 가뭄으로 수확면적이 감소하고, 단수는 200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2008년산 콩 생산량이 전년보다 크게 감소하였다.

표 19-1. 세계 콩 수급 동향

단위 : 천 ha, 천 톤

연도[1]		1995	2000	2005	2007	2008	2009[2]	'09/'08 증감률
세계	재배면적	61,063	75,439	92,916	90,724	96,271	101,487	5.4%
	생산량	124,706	175,759	220,670	221,129	210,870	250,254	18.7%
	수출량	31,643	53,756	63,804	79,519	76,891	79,609	3.5%
	수입량	32,462	53,052	64,129	78,162	75,966	77,790	2.4%
미국	재배면적	24,906	29,303	28,834	25,959	30,222	31,007	2.6%
	생산량	59,174	75,055	83,507	72,859	80,749	90,336	11.9%
	수출량	23,108	27,103	25,579	31,538	34,925	36,469	4.4%
	수입량	121	97	92	269	361	218	-39.6%
브라질	재배면적	10,950	13,934	22,229	21,300	21,700	22,700	4.6%
	생산량	24,150	39,500	57,000	61,000	57,000	63,000	10.5%
	수출량	3,458	15,469	25,911	25,364	29,986	23,750	-20.8%
	수입량	1,050	733	63	150	50	150	200.0%
아르헨티나	재배면적	5,980	10,400	15,200	16,371	16,000	18,800	17.5%
	생산량	12,480	27,800	40,500	46,200	32,000	53,000	65.6%
	수출량	2,103	7,304	7,249	13,837	5,746	10,150	76.6%
	수입량	92	320	584	2,954	1,285	300	-76.7%
중국	재배면적	8,127	9,300	9,591	8,750	9,130	8,800	-3.6%
	생산량	13,500	15,400	16,350	14,000	15,500	14,500	-6.5%
	수출량	222	208	354	453	400	500	25.0%
	수입량	795	13,245	28,317	37,816	41,098	41,000	-0.2%

주: 1) 유통연도(Market Year) 기준으로 아르헨티나·브라질·중국은 10월~익년 9월까지, 미국은 9월~익년 8월까지임.
2) 2009년은 전망치임.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http://fas.usda.gov/psdonline/)

○ 세계 콩 단수는 2009년 기준 247kg/10a이며, 국가별로는 재배면적의 90% 이상을 유전자 변형 콩으로 생산하는 미국과 아르헨티나가 각각 10a당 291kg과 282kg으로 가장 많았다. 중국의 경우 165kg로 우리나라 198kg보다 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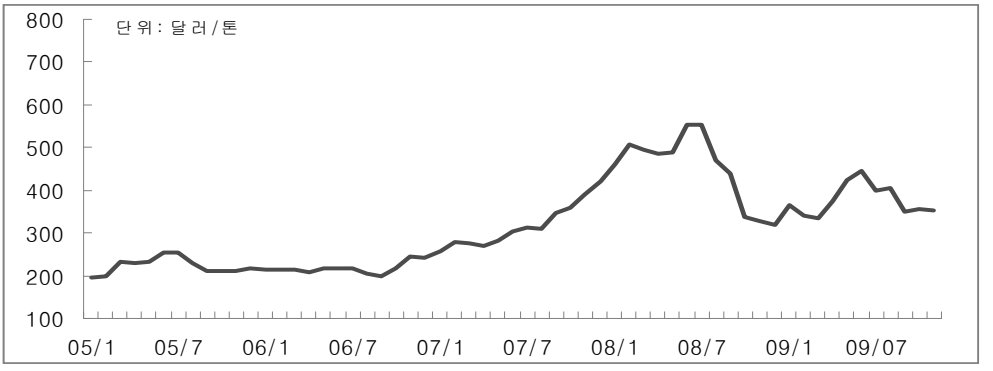
○ 2009년 세계 콩 수출량은 7,961만 톤으로 전년대비 3.5% 증가하였다. 국가별 수출 비중은 미국 45.8%, 브라질 29.8%, 아르헨티나 12.7%로 이들 3개국의 수출비중이 88.3%에 이른다. 중국은 2007년부터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콩을 수출하는 국가이지만, 세계 수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6%로 미미하다.

○ 콩의 주요 수입국은 중국, EU, 일본으로 이들 3개국의 수입량은 2009년 기준 세계 콩 수입량에서 각각 52.7%, 16.3%, 5.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1990년대 초까지 콩의 주요 수출국이었지만, 중국내 콩 수요가 급증하면서 순수입국으로 전환되어, 이제는 세계에서 콩을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다.

1.2. 국제 콩 가격 동향

○ 바이오에탄올 원료용 수요 급증과 세계적인 곡물 소비 증가로 2006년 말부터 국제 콩 선물가격은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국제 콩 선물가격은 2008년 7월 톤당 553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2009년에는 국제 콩 가격이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인 후, 10월부터 전년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다. 2009년 12월 국제 콩 선물가격은 톤당 379달러로 전월대비 2.3% 높고, 전년 동기보다는 18.7% 높은 수준이다.

그림 19-2. 국제 콩 선물가격 동향



자료: 시카고선물거래소(CBOT)

○ 남미지역의 가뭄으로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서 2008년산 콩 생산량이 감소하였고, 중국의 수입증가로 미국의 기말재고가 감축될 우려가 커졌기 때문에 2009년 국제 콩 가격은 강세를 보였다.

1.3. 국제 교역 여건

○ 우리나라는 UR 농산물협상에서 콩을 관세상당치로 개방하면서 1995년부터 시장접근물량[2)]을 운용해 오고 있다. 시장접근물량의 운용은 식용콩의 경우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 국영무역으로, 채유 및 탈지 대두박용을 포함한 사료용 콩은 실수요업체가 직수입하고 있다.

○ 콩의 시장접근(CMA[3)]: Current Market Access)물량은 1988～1990년 평균 수입 물량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으로, 국내생산 감소 및 소비 증가로 시장접근물량만으로는 국내수요를 충당할 수 없어 추가로 증량하여 운용하고 있다. 국영무역으로 수입하는 식용 콩의 관세는 5%, 민간무역으로 수입하는 식용 콩의 관세는 487%이다.

표 19-2. 콩 시장접근물량 및 증량 물량 추이

단위 : 천 톤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관세 (%)	국영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민간	535.6	508.6	503.2	497.8	492.4	487.0	487.0	487.0	487.0	487.0	487.0
CMA 물량		186	186	186	186	186	186	186	186	186	186	186
증량		108	129	129	108	88	109	121	98	62	109	96
합계		294	315	315	294	274	295	307	284	248	295	282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산경영팀

2) UR 농산물협상의 원칙에 따라 농산물 시장을 관세상당치로 개방할 경우, 농산물 수출국이 어려움을 겪을 것을 고려하여 기준연도(1988～1990년) 국내 소비량의 3～5% 수준인 일정 물량은 현행의 낮은 관세로 수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음. 이를 시장접근물량이라 하며, 현행 시장접근(CMA)물량과 최소시장접근(MMA)물량으로 구분함.

3) UR 농산물협상에서 관세화한 품목의 기준연도(1988～1990) 수입이 국내소비량의 3%를 초과할 경우, UR 이행기간 동안 기준연도의 시장접근 기회를 계속 보장토록 한다는 시장개방 약속방식임.

○ 한·미 FTA 협상 결과, 식용 콩은 현행 관세(487%)를 유지하고 일정 물량이 수입쿼터로 들어오며, 이에 대해서는 무관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타결되었다. 무관세 수입쿼터는 1년차 1만 톤, 2년차 2만 톤, 3년차 2만 5,000톤, 4년차부터 매년 3%씩 복리로 시한 제한 없이 증량하도록 되어 있다. 착유 및 대두박용과 장유박용은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하였다. 착유 및 대두박용은 할당관세가 1%이며, 장유박용은 5%이므로 관세를 즉시 철폐하더라도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 한·EU FTA 협상 결과, 콩나물 콩은 현행 관세(487%)를 유지하고 채유 및 박용은 5년 뒤 철폐한다는 내용으로 타결되었다. EU 콩의 경쟁력이 미국보다 낮기 때문에 미국과의 FTA를 고려하면 추가적인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4)]

2 국내 콩 수급 및 가격 동향

2.1. 콩 생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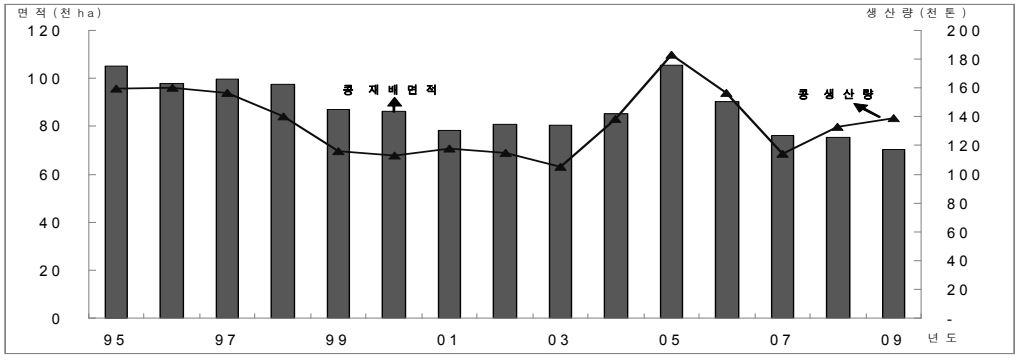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콩 재배면적은 논콩 차등수매제가 실시되던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지역 간 갈등, 밭콩·논콩 간 형평성 논란, 시장왜곡 등의 이유로 논콩 수매가격이 2005년부터 하향조정되었고, 2007년부터는 밭콩 수매가격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콩 재배면적은 2006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 2009년산 콩 재배면적은 7만 265ha로 전년보다 6.6% 감소하였다. 이 중 논콩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31.4% 감소한 4,833ha이고, 밭콩 재배면적의 경우 전년보다 4.1% 감소한 6만 5,432ha로 나타났다. 2009년산 콩 재배

4) 최세균, 2009, "한-EU FTA와 농업", 농업·농촌경제동향 2009년 봄호(2009. 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면적이 감소한 것은 2008년산 수확기 벼 가격 인상과 논콩 차등수매제가 폐지되어 논콩 면적이 감소한 데다, 돌려짓기로 인한 타 작물로의 전환이 많아 밭콩 면적도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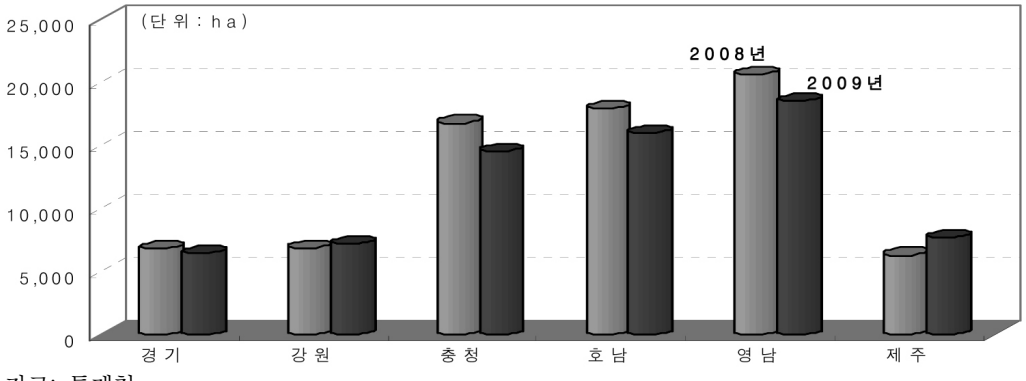
그림 19-3. 콩 재배면적과 생산량



자료: 통계청

○ 2009년 지역별 콩 재배면적을 보면 제주와 강원 지역이 각각 전년대비 21.5%, 4.6% 증가하였으나, 나머지 지역에서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충청 지역이 가장 많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13.3% 줄어든 1만 4,531ha를 기록하였다. 2009년산 콩 재배면적은 전국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일부 주산지의 재배면적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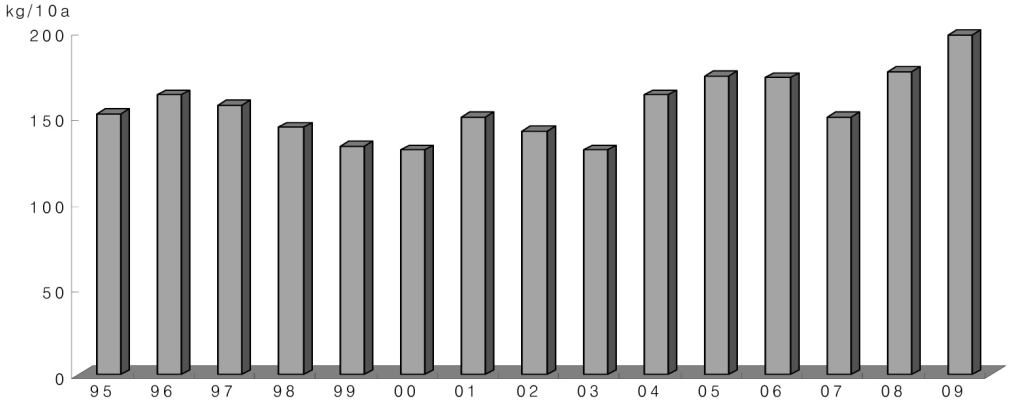
그림 19-4. 지역별 콩 재배면적 동향



자료: 통계청

○ 콩 단수는 1990년부터 2009년까지 연평균 1.4% 증가하였다. 2009년산 콩 단수는 198kg/10a로 전년대비 12.5% 증가하였으며, 사상 최고치에 해당한다. 2009년산 콩 단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개화기 및 성숙기(8~10월)에 집중호우와 태풍피해가 없었고, 기상여건이 좋아 결실상태가 양호하였기 때문이다.

그림 19-5. 연도별 콩 단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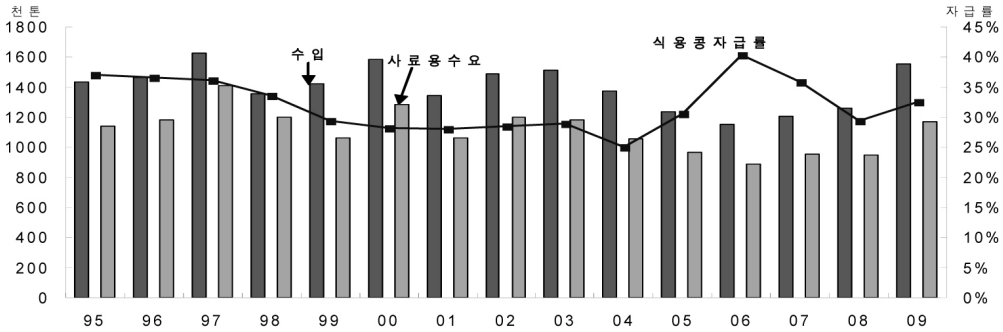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2009년산 콩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6.6% 감소하였으나, 단수 증가로 2008년산 콩 생산량은 13만 9,251톤으로 전년보다 5.0%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 경북의 생산량이 2만 5,014톤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이 2만 4,079톤, 충북이 1만 7,738톤으로, 이들 지역의 콩 생산량이 전체 생산량의 48.0%를 차지하고 있다.

2.2. 콩 수입 동향

○ 콩 수입량은 가축의 사료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1980년대 들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2009양곡연도 콩 수입량은 156만 톤이며, 이 중 식용 비중은 17.7%, 사료용 비중은 82.3%이다. 사료용을 포함한 콩 자급률은 8.4%에 불과하며, 식용콩 자급률은 수입량 감소로 전년보다 다소 상승한 32.5%이다.

그림 19-6. 양곡연도별 수입량 및 식용 콩 자급률



주: 2009양곡연도는 잠정치임.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 2009양곡연도 식용콩 수입량은 총 27만 5,014톤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보다 9.4% 감소한 수준이다. 이 중 국영무역 수입량은 전년대비 1.1% 감소한 25만 9,687톤이며 민간 수입량은 62.6% 감소한 1만 5,327톤이다. 2009양곡연도 식용콩 수입량이 감소한 이유는 2009년 들어 국제 콩 가격이 강세를 보였고 상반기에는 환율도 높아서 민간 수입량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표 19-3. 식용콩 수입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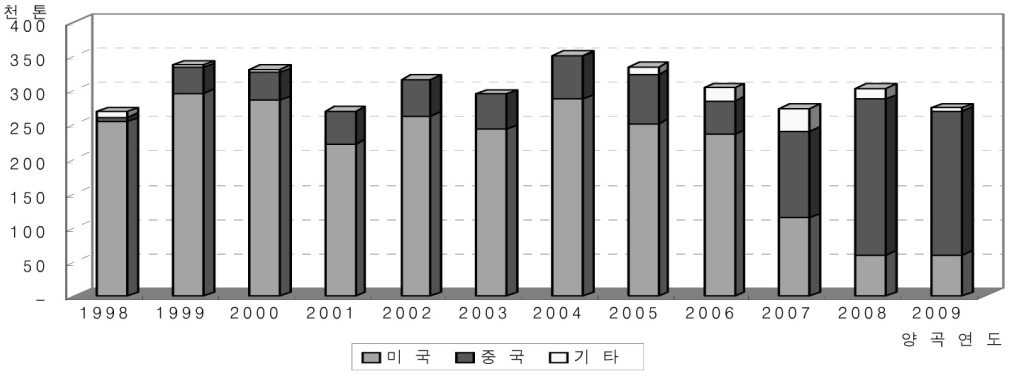
단위: 톤

양곡연도	구분	전년 11월	전년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합계
2008	국영	5,944	32,993	28,100	10,326	54,104	11,056	24,678	37,929	45,525	8,576	0	3,300	262,531
	민간	5,005	6,498	6,945	6,007	4,360	3,197	1,718	2,729	1,275	1,110	934	1,226	41,004
	합계	10,949	39,491	35,045	16,333	58,464	14,253	26,396	40,658	46,800	9,686	934	4,526	303,535
2009	국영	22,541	27,800	28,102	30,705	31,207	30,914	5,700	28,146	23,420	22,380	3,219	5,553	259,687
	민간	1,576	2,510	1,947	858	1,658	1,771	1,016	1,137	507	1,473	350	524	15,327
	합계	24,117	30,310	30,049	31,563	32,865	32,685	6,716	29,283	23,927	23,853	3,569	6,077	275,014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국영무역처 두류관리팀, 한국무역협회.

○ 국가별 식용콩 수입량을 살펴보면 2006양곡연도까지는 미국산 콩의 수입 비중이 높았다. 그러나 2006년 11월부터 국제 콩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였고 국제유가도 2007년 2월부터 상승함에 따라, 2007양곡연도부터는 미국산 콩 수입량이 감소하고 대신 중국산 콩 수입량이 크게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그림 19-7. 식용콩의 국가별 수입량



자료: 한국무역협회

○ 2009양곡연도에는 중국과 미국에서의 수입 비중이 각각 76%, 22%로 중국콩의 수입 비중이 높아졌다. 식용콩 전체 수입량 중 중국과 미국에서의 수입 비중이 98%를 차지하고 있다.

○ 2009양곡연도 콩나물콩 수입량은 전년대비 8.1% 감소한 3만 9,033톤이었다. 기타콩(일반콩)의 수입은 전년대비 9.6% 감소한 23만 5,981톤으로 콩나물콩 수입량보다 더 많이 감소하였다. 국가별로는 콩나물콩의 경우 전체 수입량 중 95%인 3만 7,081톤이 중국에서 수입되었고, 미국에서는 1,952톤이 수입되었다. 일반콩 수입량의 경우 중국과 미국의 비중이 각각 73%, 25%로 전체 수입량의 98%를 차지하였다.

표 19-4. 품목별 식용콩 수입량

단위: 톤

양곡연도	구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합계
2008	콩나물콩	4,152	7,476	5,276	6,060	6,220	3,435	3,506	2,481	984	838	863	1,166	42,457
	기 타 (일반콩)	6,797	32,015	29,769	10,273	52,244	10,818	22,890	38,177	45,816	8,848	71	3,360	261,078
2009	콩나물콩	3,359	5,982	1,610	1,763	4,308	6,880	5,811	2,782	2,802	2,652	491	593	39,033
	기 타 (일반콩)	20,758	24,328	28,439	29,800	28,557	25,805	905	26,500	21,124	21,201	3,079	5,485	235,981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국영무역처 두류관리팀, 한국무역협회.

○ 2009양곡연도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수입한 콩의 용도별 소비실적을 보면 두부용이 50.6%로 가장 많았고 장류용이 18.4%, 두유용은 11.3%, 메주용은 1.5%, 가격조절용은 6.4%로 나타났다.

표 19-5. 국영무역 식용콩의 용도별 소비실적

단위: 톤

구분		2007양곡연도	2008양곡연도	2009양곡연도	평균 비중(%)
용도별 소비실적	두부용	120,866	113,882	122,073	50.6
	장류용	44,352	43,687	41,402	18.4
	두유용	28,575	27,251	23,915	11.3
	메주용	3,317	3,577	3,995	1.5
	가격조절용	13,994	12,949	18,463	6.4
	(부산물)	23,902	29,015	28,434	11.6
	관수용	349	335	281	0.1
	소계	235,355	230,696	238,56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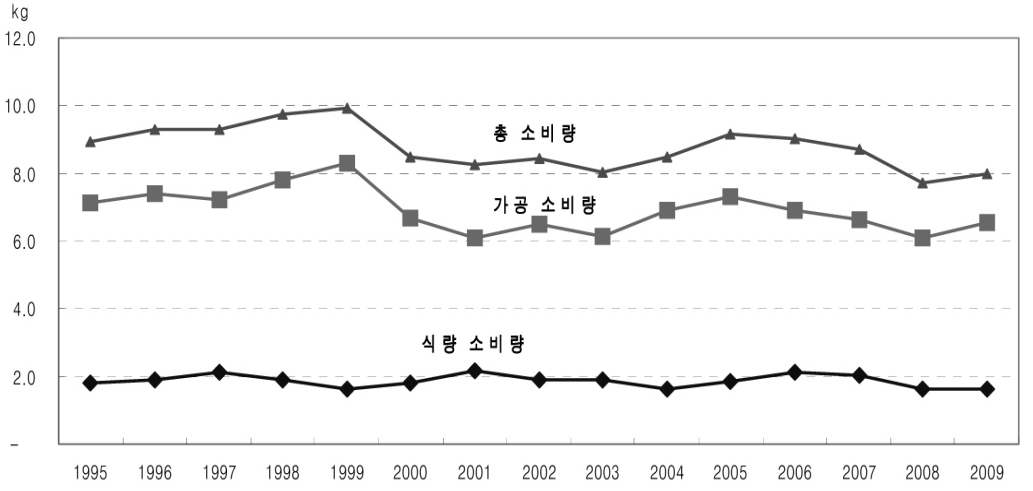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2.3. 콩 소비동향 및 소비자 구매행태

2.3.1. 콩 소비동향

○ 콩의 기본 식량 소비량은 1990년 이후 평균 1.9kg 수준에서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지만, 가공 소비량은 평균 6.7kg으로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식량 소비량과 가공 소비량을 합한 총 소비량은 가공 소비량의 변화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9양곡연도 1인당 연간 콩 소비량은 8.0kg으로 전년대비 5.3% 증가하였다.

그림 19-8. 1인당 연간 콩 소비량 추이



주: 2009양곡연도는 잠정치임.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양정자료, 통계청.

○ 콩 가공품 시장 중 가장 규모가 큰 두부시장은 2004년 3,770억원에서 2008년 4,430억원으로 연평균 4.1% 증가하였으며, 포장두부는 연평균 12.5% 증가하여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두부제품 중 포장두부가 전체 두부시장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약 60%로 추정된다. 포장두부는 대부분 국산콩으로 만든 것으로 수입콩으로 만든 두부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어 금액측면의 비중은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표 19-6. 두부시장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추정)
포장두부 시장	1,660 (44.0)	2,050 (51.4)	2,250 (54.0)	2,500 (58.0)	2,660 (60.0)
전체두부 시장	3,770	3,990	4,170	4,310	4,430

주: ( ) 안은 전체 두부시장에서 포장두부가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식품저널, 식품유통연감 2009.

2.3.2. 소비자 구매행태

○ 소비자를 대상으로 콩과 콩 가공품에 대한 구매행태를 조사한 결과,[5] 콩 구입시 선택기준으로 국산콩 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응답자가 42.8%로 가장 많았으며, '품질(맛)' 20.1%, '가격' 12.5%, '요리용도' 12.0% 순으로 나타났다.

○ 대표적인 콩 가공제품인 두부와 콩나물을 구입할 때에도 국산콩 사용 여부가 각각 30.7%와 29.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두부의 경우 소비자들이 브랜드, 품질, 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콩나물은 품질과 요리 용도를 중요한 선택기준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7. 콩과 콩 가공품 구입시 선택기준

단위: %

	콩	두부	콩나물
국산콩 여부	42.8	30.7	29.9
품질(맛)	20.1	16.9	16.6
가격	12.5	12.5	12.8
요리용도	12.0	11.9	14.7
친환경 표시	8.1	8.8	11.1
브랜드	3.0	17.6	14.3
기타	1.5	1.6	0.6
합계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비자 패널 조사(2009년 12월 16~20일 조사)

○ 많은 소비자들이 국산콩의 가격, 품질, 안전성에 대하여 '조금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64.4%가 국산콩 가격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고, 국산콩의 품질과 안전성의 경우도 각각 80.6%, 61.2%가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2009년 12월 16~20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비자 패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800명이 응답한 결과임.

표 19-8. 국산콩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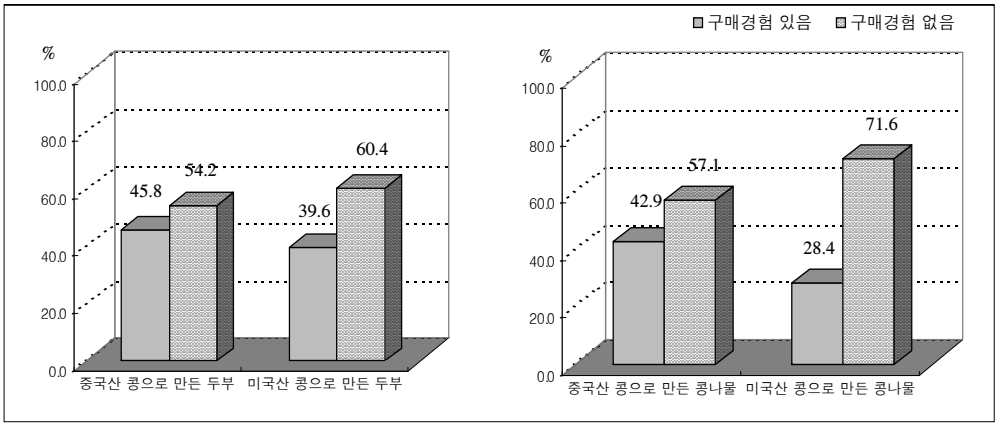
단위: %

	가격	품질(맛)	안전성
매우 낮다	0.3	0.0	0.4
조금 낮다	2.9	0.9	4.0
보통이다	42.4	18.5	34.4
조금 높다	45.0	55.8	47.6
매우 높다	9.4	24.8	13.6
합계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비자 패널 조사(2009년 12월 16~20일 조사)

○ 중국산과 미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를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각각 45.8%와 39.6%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산 및 미국산 콩을 사용한 콩나물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각각 42.9%와 28.4%로 조사되었다.

그림 19-9. 중국 및 미국산 콩 가공품 구매경험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비자 패널 조사(2009년 12월 16~20일 조사)

○ 국산콩 가공품에 대하여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산과 미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는 각각 응답자의 86.8%, 76.5%가 안전하지 않다고 평가하였고, 콩나물의 경우도 각각 85.7%, 79.8%가 안전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비자들은 미국산보다 중국산 콩으로 만든 가공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9. 원산지별 콩 가공품에 대한 안전성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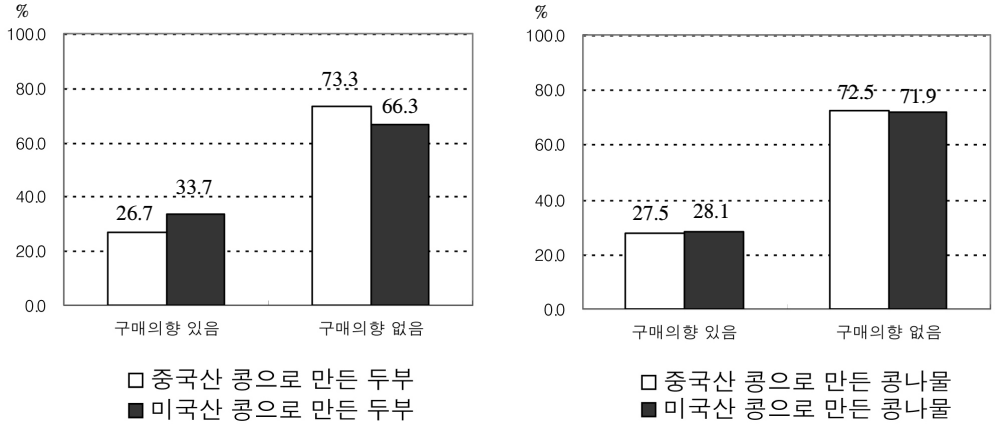
단위: %

	두부			콩나물		
	중국산	미국산	국내산	중국산	미국산	국내산
매우 낮다	48.8	30.7	0.8	48.9	32.8	1.2
조금 낮다	38.0	45.8	1.7	36.8	47.0	2.8
보통이다	12.2	22.1	20.3	13.2	18.7	26.3
조금 높다	0.5	1.1	60.8	0.6	1.1	57.0
매우 높다	0.5	0.3	16.4	0.5	0.4	12.7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비자 패널 조사(2009년 12월 16~20일 조사)

○ 향후 소비자들의 중국산 및 미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 구매의향은 각각 26.7%, 33.7%로 나타났고, 콩나물의 경우 각각 응답자의 27.5%, 28.5%가 구매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9-10. 중국 및 미국산 콩 가공품 구매의향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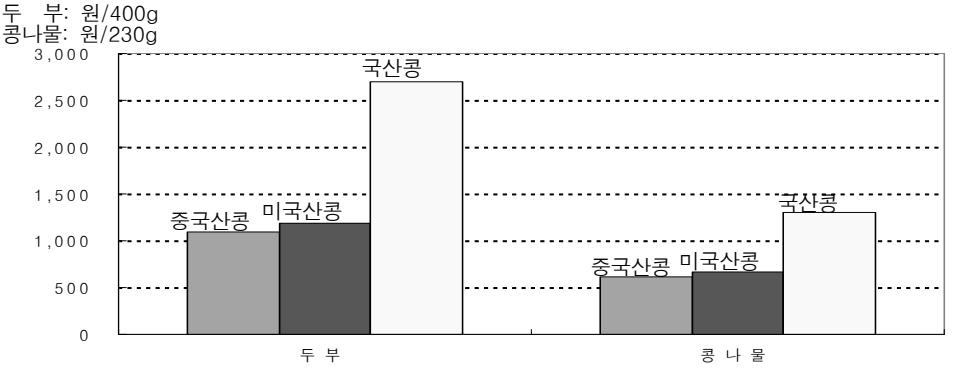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비자 패널 조사(2009년 12월 16~20일 조사)

○ 중국산 및 미국산 콩 가공품에 대한 지불의향 금액(Willingness To Pay, WTP)을 조사한 결과, 중국산 콩과 미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는 각각 1,093원 / 400g, 1,192원 / 400g이었다. 중국산과 미국산 콩으로 만든 콩나물의 지불의향 금액은 각각 610원 / 230g, 666원 / 230g으로 조사되었다.

○ 중국산 콩을 사용한 가공식품의 지불의향 금액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소비자들이 중국산 콩의 안전성에 대하여 불신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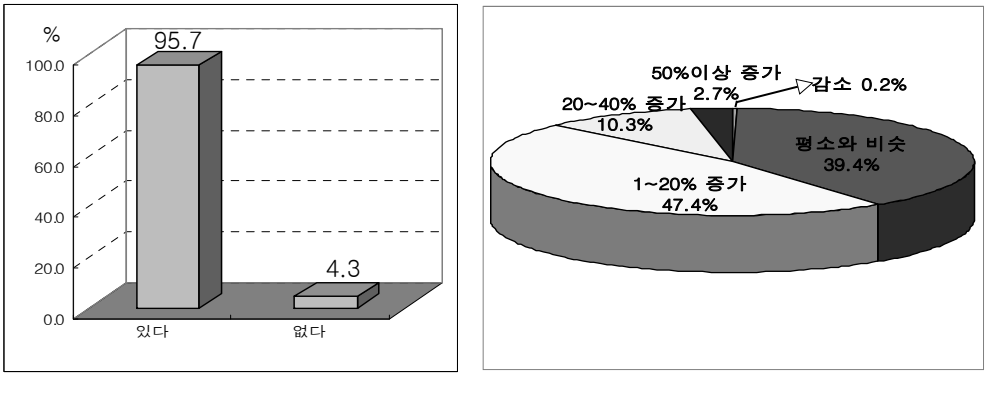
그림 19-11. 중국 및 미국산 콩 가공품 지불의향 금액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비자 패널 조사(2009년 12월 16~20일 조사)

○ 콩과 콩 가공식품이 건강에 좋다는 보도자료나 광고를 접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5.7%가 광고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콩의 장점과 관련된 광고를 접한 이후 응답자의 60% 이상이 평소보다 콩과 콩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를 늘리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19-12. 광고 경험 이후 소비량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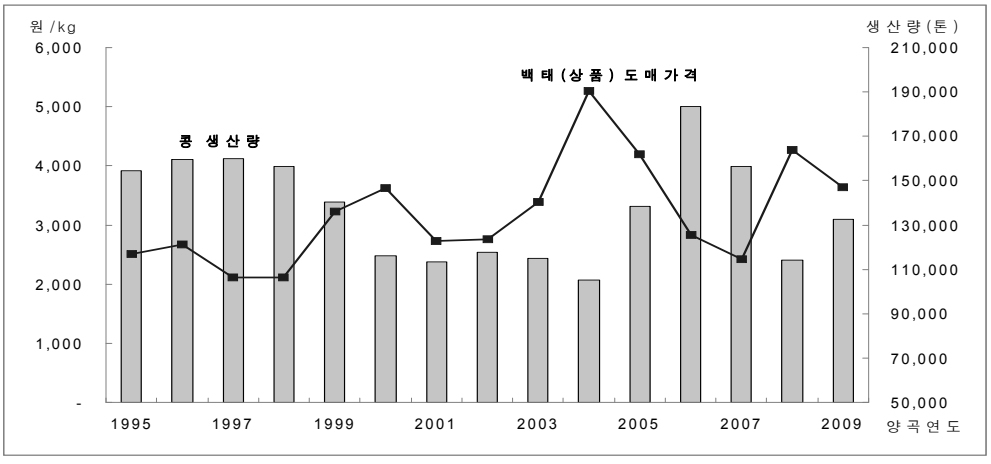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비자 패널 조사(2009년 12월 16~20일 조사)

2.4. 콩 가격 동향

○ 1995양곡연도부터 2009양곡연도까지 콩 생산량이 연평균 1.1% 감소함에 따라 콩 도매가격은 연평균 2.7% 상승하였다. 1995~2009양곡연도 콩 생산량과 도매가격의 상관계수는 -0.64이다.

그림 19-13. 콩 도매가격 동향(백태 상품, 양곡연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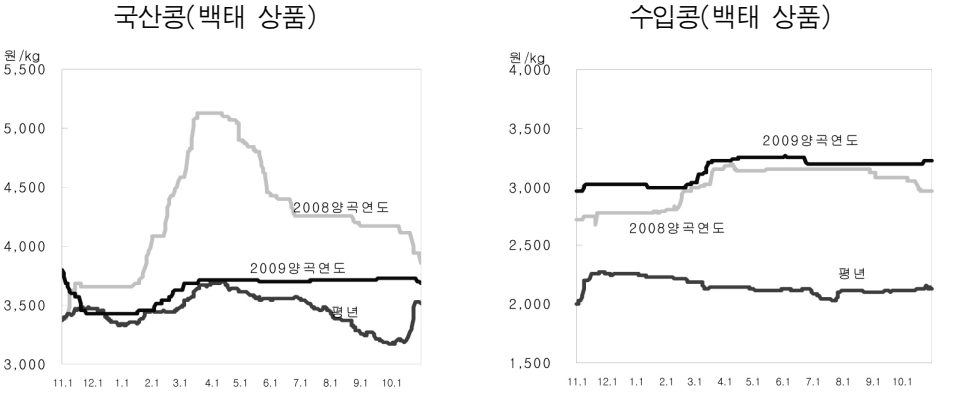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농수산물유통공사.

○ 2002년부터 논콩 차등수매제가 실시되면서 2004양곡연도부터 2006양곡연도까지 콩 생산량은 연평균 32.1% 증가하였으며, 백태(상품) 도매가격은 연평균 26.6% 하락하였다.

○ 2008년에는 콩 생산량이 전년보다 16.1% 증가하여 2009양곡연도 국산콩(백태 상품) 평균 도매가격은 3,639원/kg으로 전년보다 14.7% 낮았다. 중품 도매가격도 3,367원/kg으로 전년보다 15.0% 낮은 수준이었다. 국산콩 도매가격은 2009년 초 수입콩과 국산콩의 가격차이가 줄어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승하였다. 그러나 2009년 4월부터 안정세를 보인 후 2009년산 콩이 수확되기 시작하면서 10월 들어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그림 19-14. 국산콩과 수입콩 도매가격 추이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국제 콩 가격 강세와 상반기 환율 상승으로 2009양곡연도 수입콩 중품 평균 도매가격은 3,146원/kg으로 전년보다 4.3% 높은 수준이다. 수입콩 도매가격은 국제 가격 및 환율 상승에 따라 2009년 3월부터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경기 회복에 따른 환율 하락으로 2009년 7월 이후 안정세를 보였다.

3 콩 수급 및 가격 전망

3.1. 단기 전망

○ 2009년산 정부비축 콩 수매실적은 전년에 비해 70.8% 감소한 1,272톤이다. 이 중 논콩은 509톤으로 수매계획대비 5.0% 수매되었으며, 밭콩은 763톤으로 수매계획대비 19.1% 수매되었다. 전년보다 정부수매가격이 5%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비축 수매실적이 저조한 것은 2010양곡연도 수확기 산지가격이 정부 수매가격(콩 대립종 1등급 3,168원/kg, 콩나물콩 소립종 1등급 수매가격 3,290원/kg)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표 19-10. 2009년 정부비축 콩 수매 현황

단위: 톤

구분		2009년			2008년 실적
		수매계획	수매실적	수매율(%)	
논콩	일반콩	10,000	505	5.1	3,392
	콩나물콩	100	4	4.0	11
	소계	10,100	509	5.0	3,403
밭콩	일반콩	3,000	453	15.1	955
	콩나물콩	1,000	310	31.0	-
	소계	4,000	763	19.1	955
합계		14,100	1,272	9.0	4,358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산경영과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콩 표본농가 644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10년산 콩 재배의향 면적은 전년보다 2.0% 증가한 7만 1,649ha일 것으로 전망된다.

○ 콩 재배의향 면적이 전년보다 늘어난 것은 타 작물에서 콩으로 전환하려는 농가가 많고, 2009년 기상여건이 좋은 데다 병충해 피해도 적어 단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2009년산 콩 가격도 전년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19-11. 2010년 콩 재배의향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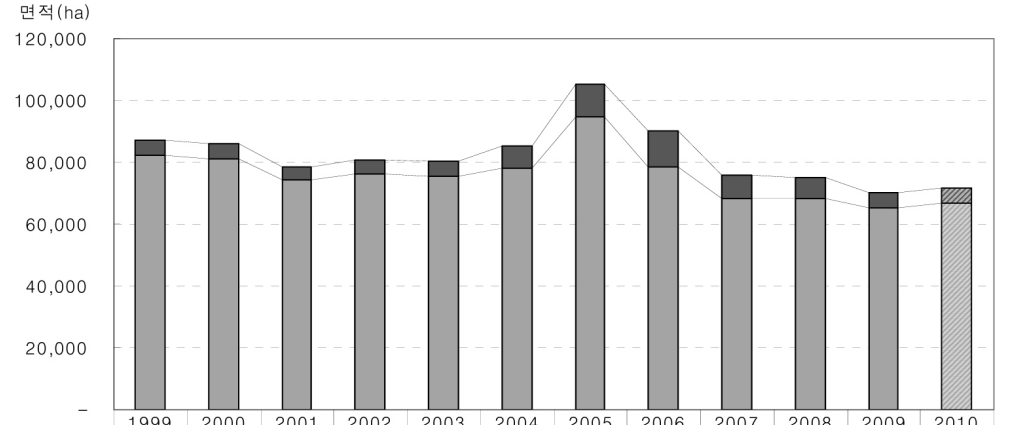
단위: ha

	밭콩	논콩	합계
2009년	65,432	4,833	70,265
2010년	66,632	5,017	71,649
증감률(%)	1.8	3.8	2.0

주: 농업관측정보센터 콩 표본농가 644호 대상 전화조사 결과(2009.12.21.~2009.12.28 조사)

○ 논콩과 밭콩별로 재배의향 면적을 살펴보면, 옥수수와 채소 등 타작물에서 콩으로 전환하려는 농가가 많아 밭콩 재배면적의 경우 전년대비 1.8% 늘어난 6만 6,632ha로 전망된다. 전체 콩 면적의 10% 미만인 논콩 재배면적의 경우, 쌀의 공급과잉으로 2009년산 쌀 가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논콩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3.8% 증가한 5,017ha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9-15. 밭콩, 논콩 재배면적 추이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논콩면적	4,652	4,875	3,973	4,481	5,042	7,216	10,867	11,944	7,329	7,042	4,833	5,017
밭콩 면적	82,374	81,301	74,442	76,323	75,405	78,054	94,554	78,304	68,438	68,200	65,432	66,632

주: 2010년 면적은 농업관측정보센터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 2010년산 콩 재배의향 면적인 7만 1,649ha에 단수를 172~187kg/10a으로 가정하면, 2010년산 콩 생산량은 12만 3,236~13만 3,984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배면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2010년산 콩 생산량이 전년보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이유는 2009년산 콩 단수가 이례적으로 증가하여 사상최고치를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표 19-12. 2010년산 콩 생산량 전망

	2009년산	2010년산
면적(ha)	70,265	71,649
단수(kg/10a)	198	172~187
생산량(톤)	139,251	123,236~133,984

주: 1) 2010년산 재배면적은 콩 표본농가 조사치, 단수와 생산량은 농업관측정보센터 추정치임.
2) 콩나물콩을 포함한 전체 콩 재배면적과 생산량 전망임.

○ 농업관측정보센터 콩 표본농가 조사결과, 2010년 콩나물콩 재배의향 면적은 8,654ha로 추정된다. 지역별로 보면, 콩나물콩의 주산지인 제주가 전년보다 2.9% 증가하고, 전남은 2.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북과 충남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2010년산 콩나물콩 재배의향 면적에 단수를 159~172kg/10a로 가정하면, 콩나물콩 생산량은 1만 3,760~1만 4,885톤으로 전년보다 8.3~15.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9-13. 2010년산 콩나물콩 생산량 전망

	2009년산	2010년산
면적(ha)	8,451	8,654
단수(kg/10a)	192	159~172
생산량(톤)	16,226	13,760~14,885

주: 농업관측정보센터 추정치, 단수는 제주도 단수를 기준으로 추정함.

○ 2010년산 전체 콩 생산량이 전년보다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0년산 수확기 콩 가격(백태 상품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2.5~8.6% 상승한 3,764~3,985원/kg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9-14. 2010년산 수확기 가격[1] 전망

	2009년산	2010년산
생산량(톤)	139,251	123,236~133,984
수확기 가격(11~12월)	3,671원/kg	3,764~3,985원/kg

주: 2010년산 생산량 및 수확기 가격은 농업관측정보센터 추정치임.

3.2. 중장기 전망

○ 중장기 전망을 위한 시나리오는 한·미 FTA 및 한·EU FTA가 2011년부터 발효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한·미 FTA 발효 시 식용콩의 무관세 수입 쿼터는 1년차 1만 톤, 2년차 2만 톤, 3년차 2만 5,000톤, 4년차부터 매년 3%씩 복리로 시한 제한 없이 증량하게 된다. 한편 한·EU FTA 발효 시에는 식용콩의 현행 관세(487%)가 유지된다.

○ 세계적으로 유전자 변형(Genetically Modified, GM) 콩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소비자들은 품질과 안전성 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국산콩에 대한 신뢰와 수요가 높아, 국산콩 재배면적은 중·장기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 콩 재배면적은 2015양곡연도에 8만 1,000ha, 2020 양곡연도에 9만ha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9-15. 콩 수급 전망

양곡연도		재배면적 (천ha)	단수 (kg/10a)	생산량 (천 톤)	식용 수입량 (천 톤)	1인당 소비량 (kg)
2009		75	176	133	275	8.0
2010		70	198	139	297	8.9
전망	2015	81	184	149	321	9.5
	2020	90	189	169	327	10.1

자료: 통계청, KREI-KASMO 2009.

○ 중장기적으로 재배면적 및 단수 증가로 인해 콩 생산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콩 생산량은 2015양곡연도에 14만 9,000톤으로 늘어나고, 2020 양곡연도에는 16만 9,000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한·미 FTA 발효로 인하여 무관세 수입쿼터량이 증가하면서 식용콩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15양곡연도 식용콩 수입량은 32만 1,000톤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0양곡연도에는 32만 7,000톤이 수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 1인당 콩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인당 콩 소비량은 2015양곡연도에는 9.5kg, 2020양곡연도에는 10.1kg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소비자들은 콩과 콩 가공식품이 건강에 좋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향후 콩 소비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